

장성군 고려시멘트 부지 미래산업 플랫폼 구축 국가계획 반영 건의안

전남 장성군은 호남의 중심지로서, 산업과 정주, 교통이 융합된 전략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성읍 단광리와 황룡면 일대에 위치한 고려시멘트 부지와 건동광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장성의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 시설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으나 산업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장성군은 해당 부지를 단순한 유흥지로 방치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과 산업 재편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자체적인 검토와 정책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장성군이 구상하는 미래산업 플랫폼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청년 정착, 기술 기반 산업, 정주 환경, 문화·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지역성장 거점이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실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단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실행모델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고려시멘트 부지 및 건동광산을 활용한 미래산업 플랫폼 조성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만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장성군 건동광산 폐광을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하여 이를 위한 국비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한다.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 위치한 건동광산은 총 55km 길이의 지하 갱도와 52만 8천㎡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갱내수를 냉각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에 최적화 되어 있다.

이는 고비용의 냉각설비가 필요한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사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 저감으로 탄소 중립시대에 부합하며 지진, 폭염 등 재난대응력과 보안성도 매우 뛰어나다.

또한, 광주 AI 국가시범 도시조성과 연계가능한 전략적 입지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둘째, 고려시멘트 폐공장 부지에 도농복합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국비지원 및 제도적 반영을 건의한다.

1973년 가동을 시작한 고려시멘트는 지역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폐업함에 따라 방대한 유휴지가 도심 인근에 방치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해당 부지에 전시회, 박람회, 회의, 문화 행사를 아우를 수 있는 도농복합형 컨벤션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데이터센터 조성 및 컨벤션 센터 건립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장성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고려시멘트 부지와 건동광산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조성이 장성군의 산업 재편과 지역 재도약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고려시멘트 부지를 활용한 미래산업 플랫폼인
『데이터 센터』 및 『도농 복합 컨벤션 센터』 구축을
국가 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반영하라! / 반영하라! / 반영하라!

하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정부 주도형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건의한다! / 건의한다! / 건의한다!

2025. 6. 27.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